

사 례 연 구

디지털자료실의 서비스

현황과 미래

-마포평생학습관 디지털자료실을 중심으로-



성명희*

어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배우며 성장하는 평생학습사회에서 지식정보의 급속한 발전은 평생학습관 및 공공도서관의 환경 또한 빠른 속도로 변하게 했다.

디지털의 물결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부문에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고 있으며 많은 공공도서관 및 평생학습관들은 그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능동적으로 예산을 재 투입하여 시설과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중의 하나는 공공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디지털화와 관련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세계 각 나라의 정보를 탐색하고 공유하게 하는 디지털자료실 공간을 만드는 일이다.

대부분의 공공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의 디지털자료실 서비스 현황은 인터넷정보검색, 원문DB제공, 멀티미디어제작, 어학실습, 전자책 및 e-Learning 서비스, DVD 및 비디오 영화감상, 번역서비스, 무선인터넷, 위성방송, 노약자·장애인코너 등을 설치하여 서비스를 하고 있다.

서울시립공공도서관 디지털자료실의 개설 과정을 살펴보면, 1996년 마포도서관(현 마포 평생학습관)을 필두로 전자정보실을 개설하고 21세기 새로운 정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였다. 이후 공공도서관의 디지털자료실은 문화관광부에서 발표한 “도서관 정보화 종합계획”(문광부 2000. 8. 13)에 따라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었다.

2003년 1월에 전자정보실을 재 개축하면서 디지털자료실로 개칭하고 디지털자료 코너를 분산식으로 계획하여 각 자료실에도 디지털코너를 설치하여 문헌정보실 내 원문정보와 청소년을 위한 정보검색코너, 어린이실 내 디지털코너를 마련하여 정보검색 및 전자책 자료를 이용시키고 있다.

* 마포평생학습관 디지털자료실장, sungmh60@nate.com

디지털자료실에는 각 주제별 디지털 콘텐츠, 전자책과 e-Learning 콘텐츠와 인터넷코너 원문검색코너, 자료편집코너, 그래픽편집코너, 영상음향코너, 노트북코너, 예약·검색코너로 출발하였다. 2005년 1월에는 이용자들의 디지털자료실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PC 예약 절차없이 전자우편, 정보검색, 자료출력을 위한 “10분코너”,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코너를 추가로 설치하여 총 60석에 이르고 있다.

또한 2005년 5월에는 한국학술정보(주)에서 제공하는 1,200여 기관의 학회지와 학위논문 및 간행물의 원문DB를 무료로 지원 받아 “국내 학회지 원문서비스코너”를 설치하여 이용자들에게 많은 논문을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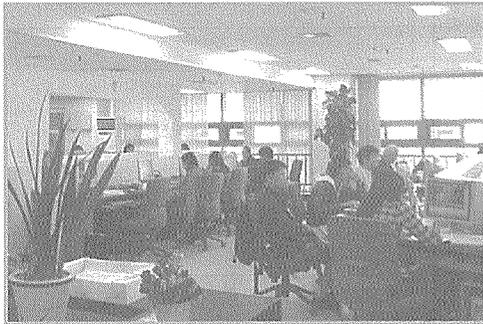
〈디지털자료실의 서비스 내용〉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특 징
인터넷	인터넷 활용 전반적인 서비스	전자우편 등의 개인목적 및 흥미위주 정보탐색 경향이 짙다.
원문DB제공	논문, 잡지, 단행본의 본문제공	디지털도서관의 핵심적인 기능이나 저작권 문제가 있다.
자료검색	자관 및 네트워크 연결도서관의 소장자료 검색	KOLIS-NET, SOLAS
멀티미디어 검색	가상CD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CD내용을 원격 검색, 실행	고가의 양질자료이나 활용이 미약
전자책	전자책 서비스	뷰어의 통일성이 미흡하며, 유행에 비해 실제적인 이용률은 높지 않음
멀티미디어 제작	스캔, 동영상, PDF 제작 등	이용자 셀프서비스 및 업무용으로 검용 활용
문서작업	워드프로세스 및 출력 제공	굳이 별도의 코너로 구분은 필요하지 않음
DVD 감상	영화 및 음악감상	투입비용 대비 활용률이 가장 높은 서비스.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 교양, 오락자료
어학실습코너	시청각자료를 활용한 어학실습	예전의 어학실습실을 컴퓨터를 활용하여 저렴하게 구축
영한, 일한번역 서비스	실시간 번역프로그램	별도의 코너화가 필요 없음. 주로 웹브라우저상에서 실시간 번역을 해주며, 보조적으로 일반문서 번역 기능을 지님
유·무선 인터넷	노트북 소지자에 대한 서비스	유·무선 IP 제공과 자료실 내 Nespot Zone설치 서비스
위성방송	전 세계 방송 시청	인터넷의 영향으로 예전에 비해 이용률 저조
마이크로자료	디지털자료의 고전적 기술	웹 혹은 네트워크 버전으로의 변환 과정
노약자·장애인 서비스	핵심적인 서비스 몇 가지 부분만 가능	이용률만 따진다면 극도로 비효율적이나 최소한의 배정은 필요
예약, 검색	이용자를 위한 관리적 서비스	이용 통계 산출

디지털자료실의 운영에 있어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구축된 디지털 자료의 실제적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홈페이지와 자료실 게시판을 통하여 콘텐츠 홍보와 자료 이용을 유도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용자들은 웹에서의 정보 검색과 개인 ID로 수험에 관련된 동영상강좌 강의에만 열중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자료의 적절한 활용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자료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기관 간의 중복투자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각 기관은 기관 고유의 특성화된 분야만을 디지털화 하는 것이 필요하며, 자료의 유형에 따른 분담 디지털화를 체계적으로 전담 관리할 수 있는 기구를 형성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 한 예로 경기도립사이버도서관의 경우 사이버상에서 전자책을 일괄적으로 올려놓으면 경기도민 누구나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전자책과 e-Learning을 청취할 수가 있다. 또한 경기도 내의 행정자료 및 향토 자료를 원문으로 구축하고 있다.

서울에 있는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에서도 가칭 "서울사이버도서관센터"를 만들어 각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에서 모든 형태의 자료가 동시에 검색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



<디지털자료실 내 전경>



<"10분코너"를 이용하는 모습>

디지탈시대의 디지털자료실은 원하는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검색하고 필요하면 즉석에서 원문정보와 전자책, e-Learning 등에 필요한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전담 관리센터를 구축하여 이용자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그러나 예산문제, 전문전담인력 부족, 원문DB제공과 저작권문제, 디지털자료실 이용자의 이용성향 문제, 홍보 및 이용자교육의 중요성 간과 등의 다양한 문제가 있다. 이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사서들의 재교육과 지속적인 이용자 교육을 통하여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의 다양한 콘텐츠, 차별화 된 서비스,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자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이제,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은 지역주민들의 교류의 장이 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고품질의 지식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시대의 각 지역의 지식창고가 되어야 할 것이다. 